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온갖 만물을 선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주님, 주님은 자비하시기에 택하신 이들에게 일어나는 행복도 불행도 모두 주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삶이 제 아무리 곤고하다 해도 그 한복판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알아차리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욕망에 휘둘러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해주십시오. 도시라는 광야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십시오. 바짝 말라 타져버린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를 빚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내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5:14-15 인도자

♠ 교 독 문 17. 시편65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202.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함께

성경봉독 약4:13-17 인도자

엡2:1-10 이호원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장영숙 전도사

그러나, 그러므로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현신의 찬송 502.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 놓였던 거대한 장애물을 치우고 용기 있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명예를 얻고, 안정된 지위를 구하고, 인간의 칭찬을 구하느라 탕진했던 우리의 시간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새벽 이슬 같은 싱그러움을 안겨주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채워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의 맥(5)/김기석 목사	성서의 평화(22)/김기석 목사
기도 : 이형숙 집사	기도 : 이한림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박정숙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박창운 권사

3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준호 고광송 이은옥 장혜숙 이춘희
	헌금위원	한완식 이인웅 윤주원 송양진 허정윤 정영선

아침

매일 아침은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시작되어 마침내 밤에 완성된다. 오늘은 우리의 관심과 사고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마태복음6:34, 야고보서4:14).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등지기에, 믿음을 잃거나 저주에 떨어지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 아침마다 그 날 저녁까지의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낮과 밤을 만드셨다. 마치 옛 태양이 매일 아침 새롭게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게 빛난다(예레미야애가3:23). 매일 아침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매일 아침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성경은 아침을 경이에 가득 찬 시간으로 묘사한다. 아침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이자(시편46:5) 눈물로 지새운 밤이 지나간 후의 기쁨의 시간이며(시편30:5),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자(스바냐3:5) 일용할 양식을 배분하는 시간이다(출16:13 이하). 동이 뜨기 전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나가셨고(마가복음1:35), 여인들은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갔으며, 제자들은 아침에 디베랴 바다의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요한복음21:4).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창19:27, 출애굽기24:4, 욥기1:5). 잠도 그들을 붙들 수는 없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은총을 마중하러 달려나간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우리는 복된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 하루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지난밤의 혼돈된 꿈과 어두운 형상들을 몰아낸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악마적 분위기, 통제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는 단지 우리가 아침에 몰아내지 못한 지난밤의 유행들일 뿐이다. 그것들은 오늘 하루를 망치게 하려고 우리를 사로잡는다. 새날의 아침은 우리의 계획과 걱정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 은총과 거룩한 임재를 위한 시간이다. 근심으로 인해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시편127:2). 아침마다 우리는 오늘에 대한 걱정이나 당장에 감당해야 할 일의 부담이 아니라, 나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

는”(이사야50:4) 주님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신다. 우리의 귀가 하루 동안 무수히 많은 목소리를 듣기에 앞서,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분의 목소리를 아침 첫 시간에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아침의 고요를 예비하셨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만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에 앞서 일용할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침 시간은 기도와 공동 예배를 위한 조용한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 외에 하루의 염려와 과제, 그리고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찬양과 기도를 바라시는 분께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질서를 잡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일에 관한 한 ‘형식적’이라는 말은 용납될 수 없다. 무질서한 삶은 우리의 신앙을 손상시키고 파괴한다. 복음의 자유와 훈련 부족은 분명히 구별된다. 과격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망치지 않으면서 충실하게 영적인 수행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영적 수련 과정을 익혀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한 기도와 명상을 위한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실천해 나갈 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 때문에 (사도행전6:4)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오늘 하루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역이 공허하고 관례적인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을 명상하며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 속에서 곳곳하게 설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리하여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미소라는 선물

우리의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한갓 사회 복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유익하긴 하지만 예수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고독,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과 하나가 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가난의 사람들의 고통, 그들이 물질적인 궁핍,
그들의 영적인 빈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으로 모셔가고,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근처에 다가오면, 미소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미소로 받아들일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더 테레사, <<즐거운 마음>>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환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헌금:

김철수, 유영파, 강인식, 김정숙, 김준호, 광혜자, 김용근, 진숙수, 박효선, 김혜권, 김창완, 김재광, 최중원, 한선희, 임보람, 김유민, 배근우, 김금순, 권미숙, 무명1

월정 헌금:

권순철, 정화애, 박병구, 박석희, 서정순, 조병주, 최윤희, 하정선, 이명희, 하현형, 윤최현영, 정성원, 박원석, 황자순, 서정진, 조광식, 김민주, 김현진, 문홍일, 류건형, 김현영, 정원석

감사 헌금:

김기석, 오현정, 이정은, 박병구, 이종현, 허경기, 최병철, 진정애, 김영한, 배근수, 권미숙, 한선희, 이성운, 오광자, 이현순

생일감사 헌금:

유증희, 유동휘, 유동호, 이혜영, 임주빈, 최현욱, 오진훈, 노순욱

100주년 기념 감사 헌금:

김준우, 우순덕, 이재문, 문복순, 이선림, 이동엽, 정두리, 박효선, 임수연, 김훈동, 김남훈, 무명1 (누계: 42,450,000원)

◇ 속회 보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차혜심	노봉임	노미향
베들레헴	노순욱	정경례	김미순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정복순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이명희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박애순	안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문복순	김경수
시온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김희우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교회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최종원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교회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박혜경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증자	박미영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최영혜

